

위대한 영웅 46명의 전사들은 왜 아직도 차디찬 바다 속에서 침묵하는가. 지금 침몰한 천안함에는 시신으로 발견된 남기훈 상사 외 아직도 실종자가 45명이 실려 있다. 엄청난 국가적 재난 앞에서 애국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던 해군. 연평해전에서 멋진 승리를 거둔 우리 해군이 의문의 천안함 침몰로 인해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최근 군 당국은 천안함 침몰 10일째를 맞아 가라앉은 선체에 들어가 실종자를 찾아내는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대신 선체를 인양하는 작업으로 들어갔다. 이는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해 난주호 준위의 순직과 98급양호 침몰 등 잇따른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실종자 수색중단과 선체 인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남상사가 주검으로 귀환하게 됐다든 소식은 다른 실종장병 가족들에게는 남의 일 같지 않았을 것이다. 가족들로선 구조작업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군을 더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시련 앞에서 더욱 의연했다. 이들의 숭고한 애국심에 존경을 보낸다.

그러나 실제로 인양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인으로 합체를 묶기까지는 고압 물대포로 펴를 파내고 그 속에 밧줄을 넣어 배의 무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침몰지역의 바닥이 단단하고 가는 모래로 덮여있어 배 밑에 터널을 뚫기가 쉽지 않다. 또 두동강이 난 함미는 내구성이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천안함 침몰과 국가의 위기관리

많이 떨어져 무게중심을 잡기도 어렵고, 체인으로 감아서 올리다가 자칫 배가 부서질 수도 있다고 한다. 합체를 인양하고 배수하는 과정에서 실종자들이 다치거나 인체가 훼손되거나 유실될 우려도 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천안함 침몰원인이 외부 충격으로 점차 굳어져가고 있다. 지진파의 크기로 볼 때 어뢰나 기뢰, 폭뢰 등 강력한 폭발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군 당국은 어뢰공격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고 한다. 은밀히 침투해 증거를 남기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아직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에 의

할 때 가능성의 여지는 남겨놓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천안함의 사고 시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의 사고원인 은폐론까지 번지기도 했다. 사고 당시 함장과 승조원들은 전투 또는 비상사태여야 한다. 그러나 사고당시 함장은 함정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있었고 생존자 중 일부는 내복이나 체육복 등 평상복 차림이었다. 샤워를 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과학적 증거를 찾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 이처럼 불신에 시달리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고 초기 어수선한 대응이 불신을 키운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 의혹이 나오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군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순식간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도 문제지만 위기관리 대응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모든 사고는 다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의연히 대처해야 하기 위해 안전 훈련이 필요하고 위기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사고 시간의 보고가 무려 수차례 정정되었고, 초기부터 사고 수습 과정의 보고가 함장과 국방장관과 대변인의 말이 서로 달랐다. 이러한 세세한 구체적 문제점은 군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천안함 사건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자료부터 정확해야 한다. 그렇다고 군의 기밀자료를 전부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발표 하나하나에 머리를 가웃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천안함 침몰과 같은 사고는 기뢰든, 어뢰든 아니면 자체 폭발이든 어떤 원인으로든 일어날 소지는 있다. 이미 일어난 천안함의 침몰 앞에서 그간 군이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 전체의 위기관리이다.

어떤 사고이든 간에 거기에 맞는 위기의 대응 능력은 절대적으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위기 대응 능력의 취약점을 드러내었고 그것은 곧 우리 안보의 구멍이 될 수 있음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막강 해군의 방위 능력을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다시 한 번 다잡아야 될 것이다.

사설

안상수 원내대표 물러나야 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외압 발언은 불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중대 사건임에 분명하다. 봉은사 주지 명대 스님이 지난 일 일요법회에서 “지난해 11월 13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현 정권에 비판적인 강남의 부자 절 주지를 그냥 두면 되겠느냐’고 말했다”라며 외압설을 제기했다. 안 원내대표가 발언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진실게임을 이어지는 듯했으나, 당시 안 원내대표와 자승 총무원장이 만나는 자리에서 함께했던 김영국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명진 스님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후 안 원내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8일 불교기자실천운동본부 발기인 171명이 발기 선언문을 통해 “불교계 회 협회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종단의 자주성을 침해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정계를 떠나는 것만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도 9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원내대표가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자주성을 침해한 것은 물론 헌법에서 명백히 천명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안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강하다. 침묵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칫 불교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칠 수도 있다. 책임이 크고 권한이 큰 만큼 행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해야 하며 들고남이 분명해야 한다. 남의 일인 양 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도 땀땀치 못하다.

종회의원 특보 위촉 적절치 않다

조계종 중흥은 권력분립을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종단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특정한 또는 특정집단에 편중되는 것을 막아 원용화합을 이루려는 의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집행부인 총무원장·총무원·포교원, 입법·대의기관인 중앙총회,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히 구획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총회에는 집행부에 대한 통제 기능을 중요한 역할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해외 특별교구, 불교연구소 설립,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 종단 전산화를 담당할 특보를 위촉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특보를 두어야 할 만큼 위의 사업들은 불교발전 위한 중대사이다.

그런데 중앙총회의원을 특보로 임명 한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웃하게 된다. 총무원과 중앙총회가 서로 화합해 종단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종단 내 각 기관의 화합은 집행부와 중앙총회가 지닌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넘어서지 않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종단이 엄격히 지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앙총회는 대의기관·입법기관·행정통제기관·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집행부의 중무형 정을 감시·비판·견제해야 할 종회의원이 총무원의 종책을 보좌하는 업무를 맡는 것은 아무래도 적절치 않다.

3월인가 싶더니 어느덧 4월이다. 이제 설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우리학교 법당은 자비원이다. 한 노사께서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는 거룩한 전당이 되라고 지어주시는 이름이다. 그 곳에서 우리는 매일 종교수업을 하고 1주일에 한번 씩 선생님·학부모 대상의 법회를 열기도 한다. 최근 108배 참회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아침마다 아이들이 헐떡거리며 뛰어와 예불을 올린다. 그런 자비원도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바빠진다. 그 날을 봉축하는 각종 행사들을 준비·진행하기 때문이다.



사부대중 갈림

혜정 스님
 의정부 광동고 교부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등

이다. 부임 초기에는 그런 아이들을 지도해 보려고 시도도 해봤지만 지금은 모른척한다. 설사 어찌 해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고이 들지 않을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기력이 왕성한 그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긴장이 해소되고 편안해 질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것이라. 또, 그런 아이들을 부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굽어보고 게실 것이기 때문이다. 불자 학생은 물론,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무교인 아이들이 부담 없이 드러내며 법당과 친숙해 진다는 사실은 내게 있어서 무엇보다 더 소중한 부분이다.

시절이 수상하고 또 수상하다. 글로벌 경

제난으로 청년 실업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안함 침몰로 인해 생애 같은 목숨들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이런저런 어수선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러한 때 신통을 이라도 부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난국을 해결했으면 싶다. 그러나 우리에게 살 속에서 그것이 딱히 따로 있었는가. 우리 모두가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되어 서로 보듬어 주고 이해하고 갈무리 하는 것밖엔. 넓고 깊고 온화한 그분의 마음이 된다면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것이 어렵다면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자주 거론 되고 있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정성을 배울 일

이다. 올해도 우리는 예년처럼 해묵은 먼지를 씻어낸 등산에 하얀 속지를 바른 후 예쁜 꽃잎을 붙일 것이다. 어른들이라면 10분이면 족히 완성할 등을 1주일 내내 붙이고 앉아 등을 만드는 시간 보다 수다를 떨고 장난을 친 시간이 더 많은 것이다. 그러면 나는 또 그들 사이를 바빠 오가며 이렇게 외칠 것이다.

‘자, 따들이 말고 이렇게 등을 만들어 봐요! 꽃잎 하나에 부모님, 꽃잎 하나에 형제, 꽃잎 하나에 친구, 꽃잎 하나에 이웃을 위해 간절하게 발원 하며 붙여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비로운 등이 될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여전히 시골벽처럼 하겠지만 나는 진심으로 바란다. 연등이 나 자신을 비롯하여 온 우주의 중생들의 안녕과 평화를 비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묵은 먼지를 털어내어 깨끗하고 예쁘게 피어나는 연등처럼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털어내고 바르고 고운 것으로 재생하기를. 그래서 아픈 이들의 마음을 보듬고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기를.

그것은 가난한 노파의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는 것밖엔 없다. 그것이 자비 광명의 등불이요,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67 인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외사출 연월담 실시간 뉴스못다뉴스 불교포탈 부디피아 쇼핑몰 연월담닷컴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	--	--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자기를 다시리고 병을 고치는 법

1. 자기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식도 중요하고 자기의 돈이 100원이 중요하면 남의 돈 100원도 중요하다.
2.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로 인해 자기가 피해를 본다.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진실하게 하라.
3. 나이가 60살이면 60%는 순환되지 않고, 40%만 순환된다. 60%를 순환시켜야 병이 없어진다.
4.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은 멀어 진다. 상대와 협조하며 맞는 것을 찾아야 된다.
5. 자연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똑바로 말을 못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줄 것도 없지만 가져갈 것도 없다.
6. 참다운 길로 가는 길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바로 이것이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다.
7. 몸에 어혈을 제거하고 약을 먹고 1년 치료를 하면은 10년은 젊어진다.
8. 인체의 모든 병은 피가 통하지 않아온다. 혈압, 당뇨, 암, 심장병, 저승꽃, 중풍 어떤 병이라도 피가 통하면 최치한다.
9.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몸과 건강과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얻을 것이다.
10. 마음을 닦고, 공부하는 자는 자기 몸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삼시구경을 없애야 마음과 정신이 맑아진다.
11. 죽은 성인들도 하늘과 땅을 보고 공부를 하였는데, 죽은 성인들보고 애원하는가 하늘과 땅이 인간과 동물과 식물, 광물을 살려주지 않는가 하늘과 땅을 믿으면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얻을 것이다.
12. 하심을 하라. 말과 행동과 생각을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하면 마음과 정신이 맑아지고, 병도 없어지며, 지식을 알고 있는 것도 소리적으로 잘 풀리고 지혜가 생긴다.

유황법제를 전수합니다

전화 011-413-0155 차석용 저자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케어 팔꿈치 통증·관절통증·허리통증·어깨·목통증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케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따타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케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골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걸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뻥뻥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벌케어크림을

발라주겠다고 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름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를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처음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도 치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ml×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따타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명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활뿔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저녁으로 그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치아가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따타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